

“지역 시민사회의 그물망 짜기”

–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

- 일 시 : 2014. 9. 19(금), 13: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지역 시민사회의 그물망 짜기”

–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

- 일 시 : 2014. 9. 19(금), 13: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지역 시민사회의 그물망 짜기”

-자원봉사,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 목 적

- 시민사회는 자발적 영역부분으로 시장과 정치 영역의 견제와 협력을 구축하고, 개인들에게는 공공선의 가치를 고양하고 민주적 역량을 기르는 장소이고, 이는 시민사회단체라는 제도로써 가장 잘 표출됨
-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인력 등의 자원의 부족 등 어려움이 존재
-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자원봉사 자원과 지역NGO,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그물망을 짜고(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시민사회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

□ 개 요

- 일 시 : 2014. 09. 19(금) 13:00 ~ 16: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3층 회의실
- 형 식 :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

□ 주제 발표

- 주제발표 1
 - 발표자 : 정선애 서울NPO지원센터장
 - 주 제 :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의 방향성: 협력과 통합의 관점
- 주제발표2
 - 발표자 : 김선정 강릉자원봉사센터장
 - 주 제 : 지역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 종합 토론

- 좌장 :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 좌장 :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 토론자
- 김왕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허소영 :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장
- 장경태 : 지하철 노동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김제선 : (사)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 김지훈 : 충남시민재단
- 충남도 공무원(박병남 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이수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구자

□ 시간계획

시간	내용	비고
13:00~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 내빈 소개 및 워크숍 취지 설명•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인사말	사회: 이수철
13:10~1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1: 정선애 서울NPO센터장• 제 목: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방향성	
13:40~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발표2: 김선정 강릉자원봉사센터장• 제목: 지역 자원봉사조직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	
14:1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식	
14:30~1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토론: 모든 참석자- 좌장: 이상선 충남시민재단이사장	
15:5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 정리 및 폐회	만찬

■ 목 차 ■

□ 주제발표 1

-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방향성 1
[정선애 서울 NPO 센터장]

□ 주제발표 2

- 지역 자원봉사조직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 17
[김선정 강릉자원봉사센터장]

주제발표 1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방향성

정선애 (서울 NPO 센터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간지원조직 방향성

충남발전연구원
2014.9.19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1.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정의

- 중간지원조직은 (Intermediary organization)

돈을 주는 기관과

(개인, 정부, 재단, 기업)

돈을 받는 기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념에 기반하거나 풀뿌리에 기반한 조직)

사이에 위치

(Whitie House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 2008)

- '지원기관이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가치에 기초한 시민사회조직으로서 시민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서, '훈련 및 교육', '연구와 정보확보', '환경, 여성, 소수자, 아동, 인권, 지역 거버넌스와 같은 가치들에 대한 주장(advocacy)', '네트워킹' 등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수찬, 2013 재인용)

- 일본 내각부가 정의한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이란 "다원적사회에있어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며, 인재·자금·정보 등의 제공자로서, 또한NPO 간의 중계 또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직"

(주성수 외, 2012)

중간지원조직-필요성

정부.기업

- 정부나 기업은 기금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역량을 키우고자 하고 작은 풀뿌리 조직에게 기금이 전달되는데 있어 제한된 자원.전문성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 전략적 파트너로 역할을하기를 기대
- 대부분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적으로나 프로그램차원에서 활동력 있는 풀뿌리조직과의 연계를 가지고 있음.
- 신뢰성의 갭을 연계
- 신념에 기반한 조직은 기금을 찾기 어렵다.
- 신념에 기반한 조직과 풀뿌리 조직의 역량강화와 결과를 측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여 기금목적을 달성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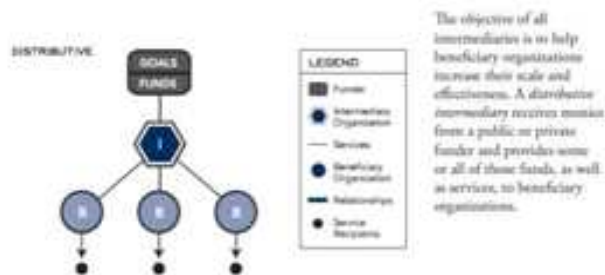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필요성

NPO

- 새로운 재정적.인적 자원을 연계
-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핵심역량강화
-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임
- 좋은 사례의 확산- 연구자, 정책결정자, 에드보커시그룹
- 풀뿌리 조직의 사회적 영향과 성공적 결과를 알림
- 네트워크 연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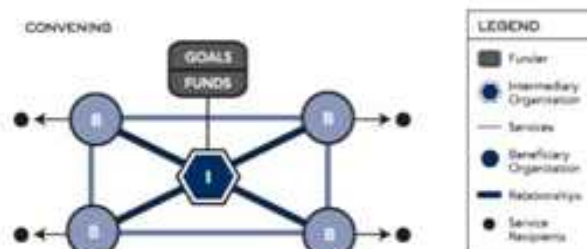
중간지원조직- 유형

- 배분형 중간지원조직 (*Distributive Intermediary*)
- 정부, 기업 지원금을 받아 수혜조직에게 배분
- 지원금이 적절히 쓰이도록 하고, 기금사용처와 프로그램성과에 대해 기금지원자에게 보고



중간지원조직- 유형

- 컨비닝 중간지원조직(*Convening Intermediary*)
- 기금과 서비스를 NPO에게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NPO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합적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중간지원조직- 유형

-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
(*Direct services Intermediary*)

-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 기반
- '관점에 대한 능력' (capacity related to perspective)
- 강력한 정보제공

(Foundation Center <http://www.foundationcenter.org/>)

중간지원조직- 공통적인 활동

교육, 훈련	리더십개발, 기금관리, 개발, 조직성장
기술적 지원	중장기 기획, 재무관리, 상근자 역량강화
기금의 재분배	시상제도, 공모지원
조직진단, 평가	조직의 자산, 수요 분석과 측정,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진단, 컨설팅
지식공유	필요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구, 조사
네트워킹	- 지역의 이슈와 문제 공유, 협력적인 기회가능성 발굴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

- **지역사회와의 유대**
 - 이사회는 취약한 집단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리더를 포함
 - 최소한 5년 이상 활동하고 지역사회의 리더로 부터 존경받고 잘 알려져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리더십과 스태프가 지역사회로 부터 나눔
- **복제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 광범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역량을 보유
 - 다양한 그룹과 조직에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유
 - 지역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기 적절한 기관이라는 평가

- **장기적인 헌신**
 - 최소한 5년 이상 존재하며 미션에 헌신.
 - 최소한 2년 이상 중간지원조직으로 존재하고 역량강화가 조직의 전략적 계획으로 뒷받침
 - 조직의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staff
- **최상의 흡입력(Attract)**
 - staff는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 전문가는 조직을 지원하고 리더십이나 staff의 모범적인 사례를 알린다..
 - staff는 자료를 발간하거나 훈련이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OUTCOME 에 초점**

- 조직은 투입, 활동, 아웃풋, 지표, 아웃컴을 적용한다.
- 아웃컴이 기금제공자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이 연계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 아웃컴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보고하며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 **높은 기준을 유지**

- 할당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 예산과 재정 추적시스템을 사용한다.
- 공공, 민간기금을 안전하게 기록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
-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기금이 비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쓰이도록 한다.

□ **효과적인 재분배 프로그램을 관리**

- 공정한 선정기준에 따른 계획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보장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객관적인 기금리뷰 프로세스와 독립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 기금수혜자의 진전, 아웃컴, 기대효과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유지**

- 주목을 끌고 지속적인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실적이 있다.
-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발전시킨다.
-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다양한 자원소스를 만들 수 있다.

- 강력한 파트너십의 구축
- 최소한 2년 동안 지속되는 활동적인 파트너십이 있다.
- 파트너십의 목적과 성취된 아웃컴을 가지고 있다.
- 다른 섹터의 파트너와 협력한다.
- 지역사회의 과제와 연대, 기획그룹등과 활동적으로 참여한다.

2.한국의 중간지원조직

한국 중간지원조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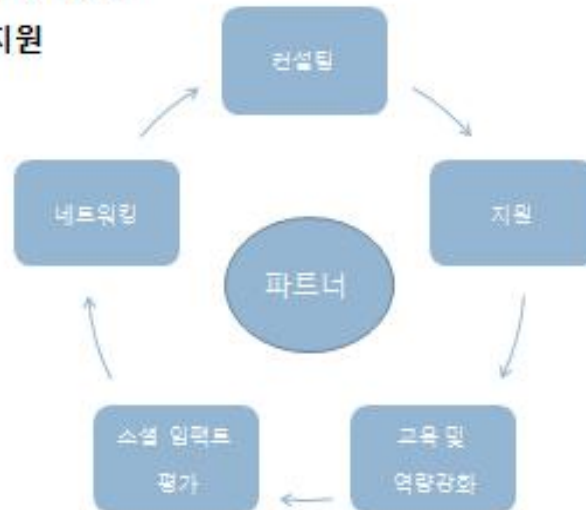
한국중간지원조직_사례

□ 아름다운재단 (배분형 중간지원조직)

- 이슈레이징을 통한 모금과 배분
 - 기억0416 (세월호)
 - 노란 봉투(노동자 손해가압류)
 -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아동시설 급식비)

□ 동그라미재단

- 통합적인 지원



□ 서울시NPO지원센터

➢ 플랫폼을 통한 '공공재' 형성



➤ 지원의 기본방향

- ✓ 돈이 아니라 관계력을 만드는데 지원
 - ✓ 단위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지원
 -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작성 컨설팅
 - 모금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소셜 임팩트 워크숍
 - 회계프로그램 개발
 - 역량강화프로그램
 - ✓ 협업역량강화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
- 2013년 11월 설립, 2014년 예산 10억, 상근자 8명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2013년 4월

한국중간지원조직_현재

- 전문성
 - 원인진단, 문제해결, 중·장기전략 부재
 - staff
- 재원
 - 취약
 - 소스가 다양하지 못함 (의존도)
- 정부와 기업 주도
-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통합적 관점 부족

3. 지역 중간지원조직

지역 중간지원조직 - 현황

센터	설립유형	핵심기능	운영현황	참여단체	설립연도
광주 NGO 센터	·(사)광주NGO시민재단 ·조례지원업무 ·민관협력 모델	·시민활동공간제공 ·활동가 및 시민리더육성 ·지역공동체 network & governance ·사회적 경제공동체 지원 ·기부문화확산 ·research & information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간규모 1,163㎡(370평)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2천 ·사업비5억7천만 (국비3억, 시비2억7천)	·보수단체 9개 ·진보단체 35개	2009
부산 NGO 센터	·(사)부산시민재단 ·관주도형 ·조례지원업무 ·민관협력 모델	·시민사회운동정보센터 ·물류민주민운동 ·활성화지원(마을만들기) ·NGO활성화 지원중심(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민관협력사업(지역사회주요의제현 역, 갈등관리포럼) ·주민조직역량강화지원 ·대안교육(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간규모 330㎡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2천(민간경 상보조) ·사업비7억(국비 3억, 시비4억)	·12개단 체중심	2009
대구 NGO 센터	·시민주도형 모델 ·인독자	·시민사회활동 지원 ·주민운동역량개발 및 ·물류민주민조직 보육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기부문화 활성화 ·공익활동공간제공 ·기금조성과 배분	·공간규모 330㎡ ·상근직원 3명 ·운영비 ·사업비1억7천(경 북지자체지원)	·시민사회 단체연대 회의 중심	2009

대전 불부린 시민 센터	·(사)불부린 사랑들 ·관주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주민조직 인제력영사업 ·사회적 기업지원사업 ·지방적 주민운동 교육 및 지원 ·공익사업기금조성 ·주민조직 내트워킹 ·불부린단체 공간지원 ·공모전심판	·공간규모 467㎡ ·상근직원 3명 ·운영비 1억원 ·사업비: 정부지원금 ·공모사업중심	·독립단체 (사)불부린 사랑들	2008
강원 NGO 센터	·(사)강원NGO재단 ·지방협력 모델	·시민사회적 성장 ·NGO인재개발능력재고 ·사회통합적 지역발전전략 ·대안경제성장 ·인재발굴 및 육성 ·대안사회개발 ·활동가지원기금조성 및 확충기금조성	·공간규모 400㎡ ·상근직원 3명 ·운영비7천8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4억5천 (국비3억, 지방비 1억5천만원)	·시민사회 단체연대 회의소속 42개 단 체중심	2009
충북 NGO 센터	·(사)충북시민재단 ·조례안 ·관주도	·시민사회경보센터 ·지역별 NGO운영발전 ·불부린주민운동지원금 육성 ·시민교육활동지원 ·민정협치 ·민력자원 관리및지원 ·대안경제실험과 확산 ·시민사회공동사업 ·상설지원기능 ·공간지원기능	·공간규모 1140㎡(345방) ·상근직원 3명 ·운영비1억2천 (충북도위탁사 업, 3년) ·사업비11억(국 비5억, 도비5억, 지방비1억)	·시민단체 연대회의 중심(70 개단체) ·운영조례 안 근거	2012

자료출처: 주영수 외(2012) 연구실

지역 중간지원조직 - 특징

- 지역사회 애드보커시 그룹이 기반
 - 애드보커시 핵심그룹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단체의 활동력 약화
 -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섭력의 영향에 좌우
- 모법인과 센터관계 미분화 (민간위탁의 경우)
 - 센터장 중심의 활동 (모법인 상임이사이자 센터장)
 - 6년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부, 지자체 지원구조와 연계
 - 재원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재분배되면서 애드보커시의 경우 포섭 혹은 배제
-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본요건이 취약
 - 재원, 전문성, Staff

지역 중간지원조직 - 특징

- 지역사회 애드보커시 그룹이 기반
 - 애드보커시 핵심그룹이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단체의 활동력 약화
 -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교섭력의 영향에 좌우
- 모법인과 센터관계 미분화 (민간위탁의 경우)
 - 센터장 중심의 활동 (모법인 상임이사이자 센터장)
 - 6년여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
-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정부, 지자체 지원구조와 연계
 - 재원이 두 영역을 중심으로 재분배되면서 애드보커시의 경우 포섭 혹은 배제
-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본요건이 취약
 - 재원, 전문성, Staff

참고문헌

양윤희, 2013, "한국의 지역재단과 중간지원의 역할"
장수현, 2013,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주성수, 2012, <시민사회를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 방안 연구>
북임창관실, 2012,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White House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 2008, Breakthrough Performance: Ten Emerging Practice of Leading Intermediary

주제발표 2

지역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김선정 (강릉시자원봉사센터장)

지역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 장 김 선 정

I.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대한 함의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 협력에 대한 의제는 원론적이나 기본적 의미로만 보아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고 또한 이미 광의의 시민사회 형태로 본다면 협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극히 일부일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보수적 색채가 짙은 역할을 하는 모임들이 과연 진보적 색채가 짙은 시민사회단체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룹들이 어떠한 형태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자생단체(사회단체라고도 불리어 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라는 개념들이 서로 모호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또한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큰 불행이며 위험하고 소모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질적 사고만으로 서로 반목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합이며,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통합이며, 세 번째로는 사회변화 동력의 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 협력관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보다 깊이 이해를 위하여 자원봉사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제자로서 자원봉사단체 및 그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최근 자원봉사의 법적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Ⅱ. 최근 자원봉사의 소개

1. 법적근거

자원봉사의 법령근거는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8852호)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75호)에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본법의 기본방향(기본법 제2조)은

-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기본법 제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범위(기본법 제7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2.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올해부터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추진

(2) 법적 성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추진시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종합계획
- 자원봉사분야의 장기비전을 고려한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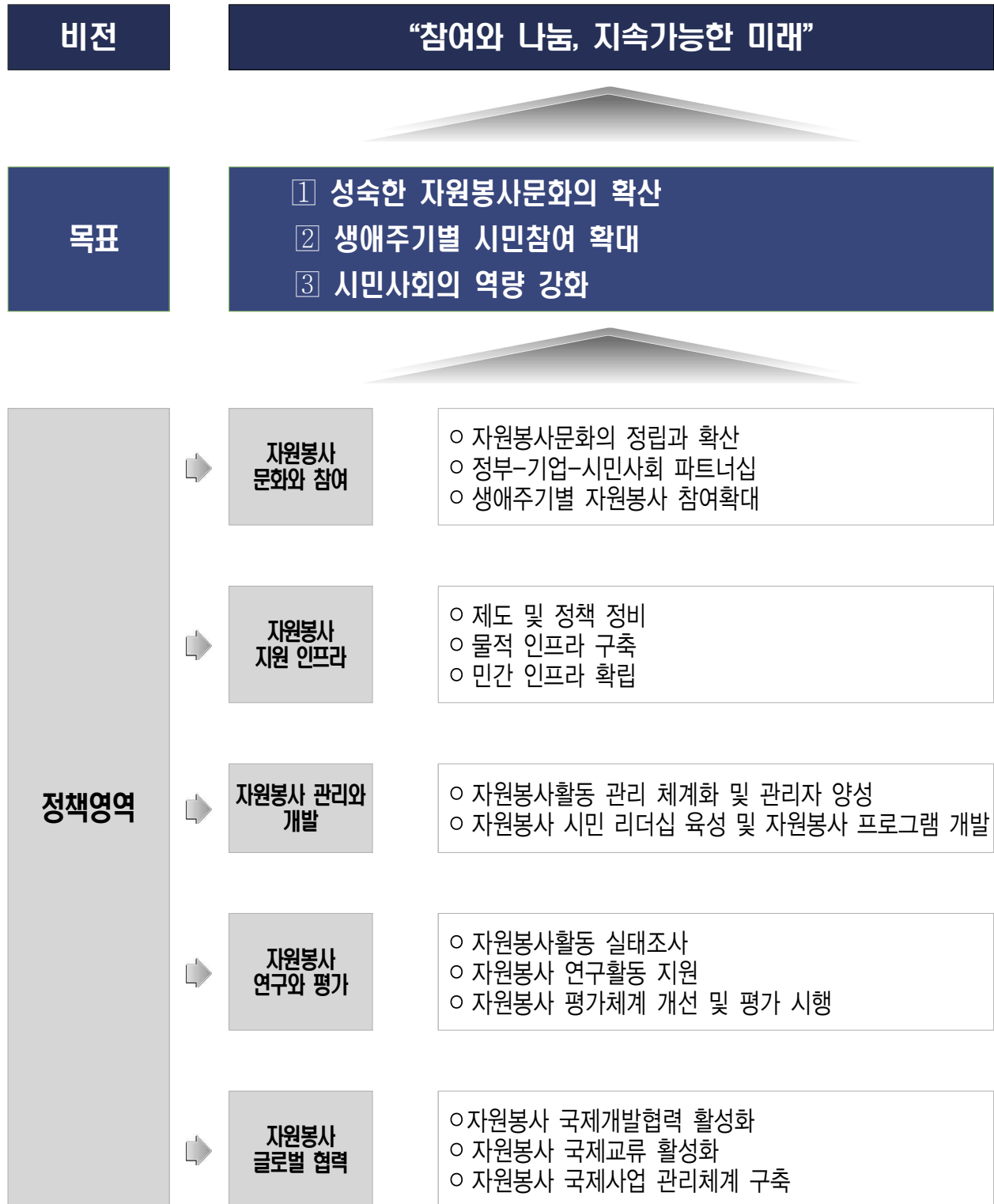
(3) 주요 내용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 관계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1365포털(나눔포털)의 역할과 운영방향

(4) 추진 일정

- 국가기본계획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
- 관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국가기본계획의 35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연중)

□ 제2차 국가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안전행정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참조)

Ⅲ.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

1.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관계

우리나라 자원봉사문화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행사를 계기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형태가 아니라 관주도의 모집형 자원봉사 참여문화였으며 그 후 1997년부터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설립지침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설립초기에는 기존 메이저 단체(새마을, 적십자 등)주도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들의 이론적 지식기반과 인식이 부족하였고, 자원봉사문화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에 대한 어젠더 개발이나 시민들의 참여욕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장기적 비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극복운동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환경시민연대 등 시민운동 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으나 서로 협력관계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중앙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접목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판단이다.

그후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이윤구, 인제대학교 총장(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강현 볼런티어 21사무총장, 이성록 교수 등 시민운동의식이 강한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자원봉사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각종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계에 시민운동 경험자들이 속속 참여하기 시작하고 시민들의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자원봉사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2. 자원봉사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관계 설정의 한계

자원봉사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메이저 단체가 주도하였던 관계로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유지에는 엄연히 한계가 존재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다. 이는 보편성과 잔여적 개념의 인식과 사회변화와 변혁을 위한 행동방식에 대한 차이 등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상호간 인적교류는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심해져가는 자원봉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의 개입과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정부와 자원봉사계의 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더욱 고착화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3.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유지의 당위성

앞에서 소개하였듯이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비전이자 목적이다.

또한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점 또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서로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시민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날로 확산되어가고, 그 욕구에 대하여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의 고민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에 와 있음에도 서로 소모적인 갈등관계가 유지된다면 사회적으로 소모적이고 시민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4.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1)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조직이 사회적 인프라로서 활용되어지고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참여의 주도세력으로서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 풀뿌리 단체들의 자원봉사참여 확산,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형성, 행정의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의 한계극복 및 효과기대 등 매우 다양하게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운동성과 선명성을 통한 사회변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요즈음은 시민과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조직의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면 시민운동의 패러다임과 사회적 인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일감을 통한 화학적 협력관계유지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간은 물리적으로 협력관계나 통합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화학적 협력관계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빈부의 격차, 고독사 증가, 공동체정신 복원운동, 마을운동, 환경과 관련된 지역의 공동관심사 등 지역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동어젠더를 개발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해결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한 이해도 증진

지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사)시민, 한국시민센터협의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똑똑똑 서로에게 말 걸기” 공동 워크숍은 양 조직간 협력관계유지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이 워크숍에서 주된 관심은 종사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너무 모른다 던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주 활동대상이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간 교류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으로는 자원봉사교육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에 강사 교류를 하는 방안과 종사자들 간 상호 교류방문 및 미팅을 통하여 공동관심사를 개발하고 서로 간 이해도를 높이자는 방안이 나왔었다.

4) 자원봉사센터를 중간 지원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마련

자원봉사 조직은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조직으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 진화되고 있으나 나름대로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과, 시민사회도 운동성과 역동성은 가지고 있으나 자원과 실천조직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을 서로 인정하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시민사회운동의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자원봉사조직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고, 일부 자원봉사조직과는 갈등관계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며, 시민사회조직에서도 많은 노력이 요구될 수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유지가 시민사회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시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5)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장(場) 마련

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대회나 박람회, 그리고 시민사회대축제 및 만남의 날 등 양 조직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IV. 나가며

자원봉사와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의 지상명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두 조직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일부 시민들과 만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절음발이 활동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또한 사회발전 이면에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세대 · 계층 간 갈등관계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문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조적 관계를 통한 사회기여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Memo

[illegible]